

“복지 1촌 맺기 ... 주민과 함께 행복한 복구 만들겠다”

문인 광주시 복구청장



“현장에서 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통하며, 도시재생·민생안정·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선도적인 행정을 하겠습니다.”

복구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주일보 12월 6일 7면) 지역민들은 복구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품격 있는 광주시 복구를 만들어 가고 있는 문인 (61) 광주시 복구청장은 “민선 7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며 민생, 동행, 혁신을 기본 원칙으로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복구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 구청장은 민선 7기 출범 당시 현안으로 생각했던 복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 극복과 도시재생 사업의 대해 성과를 내고 이에 걸맞는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 구청장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복구의 특성에 맞춘 사회복지 정책들을 적극 시행했다.

노인일자리 확대와 경로당 활성화 등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도 지원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 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행복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등을 운영하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그것이다.

역대 최대 예산 1조원 시대 열어 이웃이 이웃 돌보는 시스템 구축 코로나 상황에 민생경제 노력 공공부문 일자리 1만2522개 창출

또한 위기가구를 돌보는 ‘복지 1촌 맺기’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구 안심동행 앱 서비스’ 등을 통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복지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복구는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가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 중 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점이 문 구청장의 고민이었다. 이에 중앙부처나 광주시 주관의 각종 평가와 공모를 통해 유지한 상사업비를 이용해 현안들을 풀어 나가기 시작했다.

열악한 재정난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와 광주시 등에서 주관한 각종 평가와 공모에서 대통령상 4회, 국무총리상 3회 등 총 259회 수상으로 1086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해 주민 편의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으며 402억 원의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있는 것도 문 구청장의 성과로 꼽힌다.

복지 분야 뿐만 아니라, 문 구청장은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복구는 ‘코로나19’의 악재 속에서도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침체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바라는 주민들의 염원 속에 미래 성장 동력을 높여가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문 구청장은 ‘주민중심 혁신행정’, ‘더불어 잘 사는 행복복구’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와 도시



문인(가운데) 복구청장과 광주시 복구 공무원들이 지난 8월 수해피해를 입은 드론공원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복구 제공)

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문 청장이 내건 공약사업은 총 1조 3315억 원 규모로 총 38개 정책사업이다. 지난 2년 동안 공약 이행률은 67.3%에 달했고, 정상추진 사업이 30개 완료 후 계속 추진 사업은 8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문 구청장의 중앙·지방행정 기관을 두루 거친 경험과 관록이 녹아 있다.

또 문 구청장은 올해 사상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 지역소상공인을 비롯한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1만 2,522개 창출’이라는 역대 최대의 성과를 내면서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장’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산단 입주 기업들의 방역할

동을 지원하는 한편, 사이버 화상 수출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나 인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방역물품을 구매하고 취약계층에게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대비하고 있다고 문 구청장은 설명했다.

복구도 정부와 광주시 뉴딜정책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 인재육성과 4차 산업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도시 기반을 조성에도 앞장 선다는 게 문 구청장의 청사진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까지 전담대와 함께 중흥동과 전담대 정문 일원을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80억 원)과 ‘중흥동 청춘 창의력 시장 만들기’ 사업 (60억 원)도 추진해 광주역과 구도심을 활력을 되찾고 빛과 젊음이 넘치는 복구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다.

문인 복구청장은 “미래산업을 준비하고 복구 전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며 모든 주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질 높은 문화와 따뜻한 복지를 누리는 자립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주민과 함께 행복과 복구의 발전을 위해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고,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며 답을 찾는 혁신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교폭력 예방 위한 온라인 포래상담 공모전 시상식 및 연합회

광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날 28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온라인 솔리언 포래상담 공모전 시상식 및 연합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

이날 온라인 연합회에서는 포래상담을 운영하는 중·고등학교 10곳, 솔리언 포래상담자 450여명이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했다.

이번 공모전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알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건강한 포래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감염위험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로 실시됐고 실시간 댓글과 채팅을 통해 광주지역의 솔리언 포래상담자 및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학교폭력예방 포래상담 포스터 부문 광주시교육감상 수상자로 광주송일중학교 포래상담자 이효주 학생과 센터장상 수상으로는 명진고등학교 포래상담 동아리가 수상하게 됐다. 홍보영상부문에서는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포래상담 동아리가 교육감상을 대자초등학교 포래상담 동아리가 센터장상을 받았다.

차은선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 데이캠프, 연합회 지원, 운영학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솔리언 포래상담 프로그램이 학교 내 문화를 바꿔가면서 학교폭력의 1차 예방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활동 프로그램 더욱더 확충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저소득층 아동 ‘희망의 공부방’ 33세대 지원

광주시 동구는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희망의 공부방’을 지원한다.

7일 동구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쾌적한 학습 공간 확보 등 가정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공부방이 없는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33세대를 선정해 지원한다.

동구는 취학연령의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세대에 책상, 책꽂이, 의자, LED스탠드 등 학습용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

이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쾌적한 학습 공간 확보로 학령기 청소년들의 학습의욕 성취도를 높이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가정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게 동구의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의 학교휴교와 단축수업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가정 내 학습 환경이 중요해진 시기에 이번 공부방 지원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북부소방서, 화재 대피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홍보

광주북부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긴급대피를 돕는 ‘경량칸막이 및 대피공간’을 집중 홍보한다고 4일 밝혔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을 돕는 9mm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이다. 여성은 물론 아이들

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불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시 긴급피난이 불가능 하다는 게 북부소방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없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콘도 회원권 최저매각

양도자 「자금사정」으로 급매각합니다

■ 콘도회원권 매각내용

(단위: 만원)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콘도명	사용 체인	면적	최종 분양가	매각 금액
대명 리조트	설악, 홍천스키장, 양평, 삼척, 양양, 천안, 고양, 단양, 제주, 경주, 청송, 거제, 부산, 여수, 진도	패밀리형 방1개	2,530	1,780	리솜 리조트	제천 포레스트	실버(24)방1	2,850	1,680
						덕산 스피러스	골드(28)방2	3,210	1,980
		스위트형 방2개	3,600	2,680		안면도 아일랜드	제주 퍼스픽	로얄(34)방3	4,890
한화 리조트	설악, 용인, 양평, 평창스키장, 해운대, 경주, 백암, 지리산, 대전, 수안보, 제주, 산정호수, 거제	디럭스형 기명 (방2개)	2,480	1,680	켄싱턴 리조트	설악밸리, 설악비치, 가평, 포천스키장, 충주돈산, 수안보, 제주한림, 제주서귀포, 경주, 남원, 하동, 해운대, 도고	패밀리B(21)방1	1,980	980
		디럭스형 무기명 (방2개)	3,110	1,880		스위트A(26)방2	2,120	1,280	
						스위트B(31)방2	2,600	1,380	
					로얄(35)방3	3,200	2,200		

20년 전통 콘도전문업체 동양회원권거래소 전화 (053)951-3080 팩스 (053)944-3080